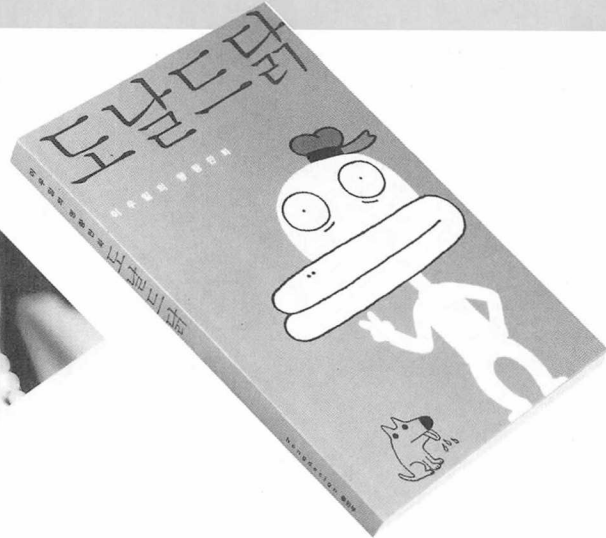




도토리·푸른하늘/CD롬 2매/총 100,000원



소담/A5변형/278면/8700원



홍디자인/A5신/232면/8500원

## 책과 멀티미디어의 행복한 만남



“멀티미디어란 책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연출자 같은 기획력이 필요하죠.”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  
펴낸 김인중 대표

‘보리’에서 책으로 펴낸 《동물도감》·《식물도감》이 CD롬으로 나왔다. 책과 CD롬이 행복하게 만났다는 평이다.

94년부터 CD롬을 만들어온 ‘푸른하늘을여는 사람들’의 김인중 대표(41)는 세밀화가 CD롬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상승작용에 놀랐다. 도감이나 백과사전에는 보통 사진을 쓰는데 사진은 배경이 묻어나고 확대하면 할수록 잘 보이지 않지만, 세밀화는 확대할수록 잔털까지 살아나 구석 구석 살필 수 있다. 여기에 책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덧붙였다. 동물의 울음소리와 동물이 등장하는 민요를 들을 수 있고, ‘가방 넣기’ 기능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한곳에 모아두게 했다.

“멀티미디어란 책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연출자 같은 기획력이 필요하죠.”

사업규모가 영세한 출판계가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김대표는 출판계가 지적 자산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선풍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교육용 CD롬 시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보다 안정된 유통망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푸른하늘은 매스미디어보다 마이크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았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시연을 나가거나 실구매층이 모이는 모임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10명이 모이면 5~6명은 반가워하며 사간다.

“컴퓨터 회사에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아이들 때문에 교육용 CD롬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국내 것으로는 쓸 만한 CD롬이 없어 직접 개발하게 됐고, 그것으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푸른하늘을 열면서 처음 만든 CD롬 〈색깔을 갖고 싶어〉는 지금까지도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전설

이다. 출판사와 애니메이션제작사, 소프트웨어전문업체가 합심해 만든 모범적 사례라는 것.

“과학 CD롬을 만들면서 과학사를 쉽게 다룬 책을 찾았는데 없더군요. 멀티미디어와 출판이 접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합니다.”

— 이현주 기자

## 알고보면 자기 안으로 떠난 여행



“사람들은 술먹다가도 바다 보러 가자며 무작정 여행 떠나잖아요. 저마다의 시선으로 여행해야죠.”

《너에게 번두리를 보낸다》  
펴낸 정유희씨

김수현 같은 드라마작가가 돼 마음잡고 돈을 굶어모아 보겠다는 투지로 몸부림치던 백수시절, 그에게 다가온 마수의 손길이 있었다. “재미있는

일이 곧 터진다.” 그 손길에 이끌려 만난 게 월간지 《페이퍼》다.

자칭 ‘중구난방 무대뽀 여행기’인 《너에게 번두리를 보낸다》(소담)는 《페이퍼》의 인기기자 정유희(30)씨가 그간 잡지에 연재한 기사를 모은 책이다. 변산·경주·선운사 등 널리 널리 알려진 여행지도 많지만, 마차진·허브나라·호도 등 ‘중구난방 무대뽀’가 아니었으면 놓쳤을 특종감 여행기도 많다.

“3년 전부터 준비한 책입니다. 모두 40여편의 여행기를 썼는데, 이 책에는 초기 14편을 골라 실었습니다. 당연히 2권도 나오겠죠.”

연재 당시부터 정유희 다녀간 여행코스 다시 밟기 모임까지 결성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비결은 여행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시각에 있다.

“사람들은 술 먹다가도 바다보러 가자며 무작정 여행 떠나잖아요. 제 여행도 그렇습니다. 굳이 자동차메라를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는 까닭도 그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처럼 여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시선으로 여행해야죠.”

이 책의 또다른 재미는 정씨와 여행을 떠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데 있다. 알려진 시인·소설가도 있지만 친구·동생·동료기자 등 그다지 유명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 겪는 에피소드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독특한 문장 속에 담겼다.

“느낌이 맞는 사람들과 주로 떠났죠. ‘꽃미남’ 얘기를 많이 해 색정적인 여자처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꽃미남이란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는 덜렁덜렁한 캐릭터로 자신을 묘사했지만, 그의 탐미주의는 유다르다. 구석구석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탐미주의는 감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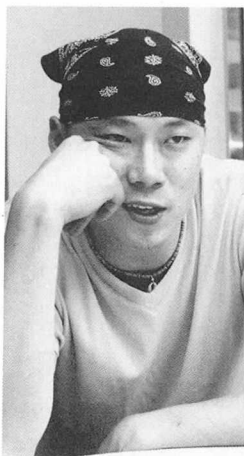
“이 책의 정유희는 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넓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카페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해졌다. 두번째 여행기가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지만, 뜻밖에 그가 쓰고 싶은 책은 《토지》의 분량에 육박하리라는, 자신의 가족사다.

— 김연수 기자

## 자기냉소의 통렬한 풍자정신



“제 만화는 ‘자기냉소’의 한 형식입니다. 자신을 비웃는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죠.”

《도날드 닭》 퍼낸 만화가 이우일씨

뽀빠이 모자를 쓴 가분수형의 머리, 침을 흘리거나 혀를 빼고 있는 거대한 입, 초점 없는 멍청한 눈동자. 어느새 90년대 간판스타의 반열에 오른 ‘도날드 닭’의 캐릭터다. 그가 《동아일보》 신문지면을 뛰쳐나와 《도날드 닭》(홍디자인)이란 이름의 책으로 이주했다. 만화가 이우일씨(30)의 ‘도날드 닭’ 캐릭터는 패러디의 산물이다.

“도날드 닭은 디즈니 만화 도널드 덕의 상징적 패러디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입된 대중문화가 우리의 맥락과 무관하게 변질되는 것에 대해 비꼬고 싶었습니다.”

그의 만화는 통렬한 풍자정신과 뼈 있는 농담이 자유분방하게 펼쳐진다. 외계인처럼 싸움질

만 하는 정치인들, 개나 소처럼 백화점 세일에 몰려가는 사람들, 홍수 났는데 낚시하는 이해 못할 족속들 등이 숨방망이인 듯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붓으로 난타당한다.

“제 만화는 ‘자기냉소’의 한 형식입니다. 자기를 비꿀 수 있으려면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반성의 시간 없이 살고 있는 듯해요. 우리 모두 멍청하게 살고 있다, 우리 자신을 비웃는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거대언론에 연재하면서 파급효과도 컸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았다. 우선 만화 본연의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다. 처음에는 까발기는 포르노에 가까웠지만 점차 매체와 독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게 됐다. 만화의 본령인 구어체를 자제해야 했던 점도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장애물이 됐다. 지난 7월부터 웹진 《딴지일보》에 연재중인 만화는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있다.

“현재 만화를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광화문 사거리에서 발가벗고 뛰는 느낌입니다. 이런 만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만화는 그리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매니아 문화가 문화발전의 기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그의 만화에 형식적 과격성과 번득이는 비평정신이 오랫동안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 듯하다.

— 박천홍 기자